

자가배합으로 생산비 절감하는 『구룡농장』

취재 : 추 용 진

국제 사료곡물 수출국들의 흉작 및 기상이변으로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생산과 재고량이 크게 감소하여 지난해 말부터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폭등하였다.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여러차례 인상되면서 전체 축산업 중 배합사료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산업의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반 사료회사는 각각의 농장 상황에 충족될 수 있는 배합사료 생산이 어렵고 동일 품목의 사료일지라도 일반 사료와 고품질 사료로 구분하여 가격차별을 하고 있어 양돈 농가들에게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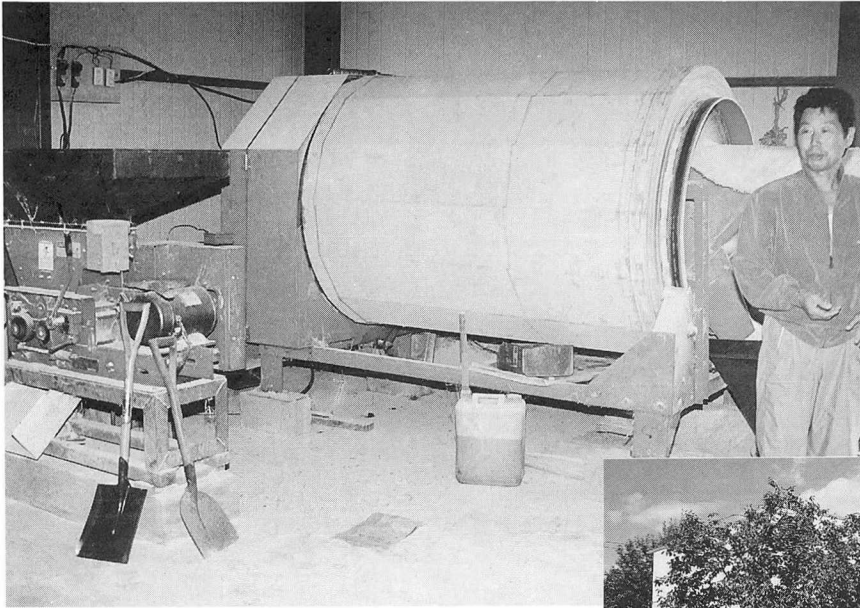
구룡농장의
김시영 사장
모습

충남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에 소재한 구룡농장(대표: 김시영)은 사료를 자가배합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돼지고기 생산뿐만 아니라 분뇨가 감소되어 환경 개선의 효과를 얻고 있어 찾아가 보았다.

분회 대전지부 회원인 김시영씨는 6개동으로 이루어진 240평의 돈사에서 모돈 30두 규모의 구룡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근처 양돈장에서 번식용 모돈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트럭의 하부까지 소독을 하고 마른 후 다시 소독을 한 다음에야 돼지를 싣고 나서 구입 농장의 트럭에다 옮겨 실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질병은 예방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갖고 세심한 주의를 하는 모습은 요즈음 돼지 오제스키병 등의 질병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치료비가 매년 늘어가는 상황에서 양돈농가의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룡농장에서는 전체 돼지사료로 원료 사료곡물을 구입, 배합하여 급여하고 있는데 김시영씨는 20년간 직접 작성한 사료배합비를 가지고 자가 배합하여 급여하고 있다고 한다.

자가배합을 하게 된 동기는 “20년전에 돼지에 습진같은 피부병이 만연하자 그 치료를 고심하던 중 그 당시 판매되던 사료에는 라이신이 첨가되



자가배합을 위한 분쇄기와 사료 배합기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방역을 위해 우측 언덕위 돈사에서 돼지를 싣고와 구입농장 트럭에 돼지를 옮기고 있다.

지 않은 것을 알고 라이신을 따로 구입하여 자가 배합사료를 만들어 급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그 후에 피부병이 없어지고 증체율이 좋아져서 지금까지 계속 자가배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시영씨는 “사료배합비를 각 농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자가배합사료 생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구룡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배합비는 외국에서 발표된 논문과 관련 책자를 가지고 재구성하여 김시영씨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기에 일반 사료회사 배합비와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아미노산 조성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구룡농장의 원료곡물 구매방법은 곡물상을 통하여 구입하며, 옥수수는 벌크로 가져오고 밀은 밀가공 공장 또는 제빵, 제과 공장에서 나오는 밀부산물물을 가져 오고 있다. 시설은 사료배합기와 분쇄기(롤러밀)를 '92년과 '93년에 각각 900만원과 350만원 정도에 구입하였는데 롤러밀은 옥수수를 시간당 2톤까지 빵 수 있어 햄머밀보다

6~7배 이상의 시간이 절약되고 롤러밀로 빵은 사료는 돼지가 잘 먹고 비육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작년엔 1,700여 만원의 비용으로 건평 45평의 창고를 지어 그 곳에서 사료 분쇄와 배합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있다.

사료의 원료곡물은 옥수수, 밀씨레기, 수수, 대두박 등을 쓰고 있으며, 옥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육질이 좋지 않아 옥수수를 배합비의 40% 이상은 쓰지 않는다고 한다. 배합 횟수는 3일에 1톤씩 1회 배합을 하고 자가 배합사료의 1kg당 생산비는 비육돈 사료가 대략 260~270원, 번식돈 사료가 2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구룡농장에서 현재 자가배합하는 사료에는 돼



롤러밀(분쇄기)로 분쇄된 사료는 돼지가 잘 먹고 비육성적이 좋아진다.

45평의 창고에서 사료곡물의 분쇄, 배합, 저장을 할 수 있다.

지가 질병에 걸렸을 때를 제외하고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는다. 김시영씨는 다른 농장에서 크리닉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몇몇 사료회사에서 성장촉진을 위한 항생제의 첨가는 돼지에게 내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항생제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주위의 양돈 농가에서 사양 및 질병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점이 생겨서 김시영씨를 찾아 문의를 해올 경우, 김시영씨는 20년 동안 사료배합비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에서 얻은 국내외의 관련 서적들의 지식과 초창기 사료배합시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주변의 양돈사양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사료의 질이 향상되어 섭취량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분뇨와 파리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원료곡물을 직접 구매하므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사료비가 절감되고 다량의 구입시 곡류는 인천항에서 농장으로 곧바로 수송되므로 물류비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룡농장의 성적은 100kg 도달 일령 160일, 이유두수 10두, 이유일수 28일이고, 분뇨처리는 수세식 3단 정화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화한 뒤 액비저장을 하고 있다.

한편 자가배합사료의 생산은 원료곡물과 첨가제 등을 직접 구매하는 번거로움과 사료배합비를 짜는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양돈경쟁상대국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양돈산업의 경쟁력 고취를 위하여 사료업체와 협력하여 자가배합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정부 및 관련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뒷바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룡농장 자가배합 사료의 특징은 잘 짜여진 사료배합비에 의해 최소의 가격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특히 농장의 상황(질병, 사양조건 등)에 맞게 사료를 만들 수 있어 효율적이다. 또한